

# 랩·판소리로, 영상으로...“사랑이 뭐냐” 묻는다

October 17, 2019 | 도재기 선임기자



김기라·김형규의 '×-사랑' 전시회 작품 중 '다른 세계의 끝없는 욕심'과 '사랑잡가. 리플렉션-늘 새로운 언어들'의 한 장면 (왼쪽부터). 통의동 보안여관 재공

## 랩·판소리로, 영상으로...“사랑이 뭐냐” 묻는다

김기라 작가·김형규 감독, 전시회 '×-사랑' 전 열어  
10~60대 퍼포먼스 연극배우들도 참여... 25일까지

여기 판소리 소리꾼정은혜, 래퍼 아날로그 소년, 힙합 작곡가 차선수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경용, 이천희, 정미경, 문주빈, 이선주, 김용식, 김선동 등 10대부터 60대의 남녀 퍼포먼스 연극배우들도 자리했다. 모두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다. 음악인이자 배우들이지만 모두 문화예술공간 '통의동 보안여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사랑'전에 참여했다.

'×-사랑'전은 자본주의하에 서 예술·예술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예민한 예술적 감각으로 작품활동을 해온 김기라 작가와 비디오작업 연구가인 김형규 감독이 마련했다. 김기라 작가가 총괄기획한 전시는 실제 퍼포먼스 촬영 영상과 설치영상 작품 등으로 구성됐다. 영상 속에선 모습·내용은 다르지만 저마다 사랑이 보인다. 사랑의 다채로움, 사랑을 쉽게 정의내리지 못하는 복잡함도 나타난다. 나아가 우리의 삶이 사랑을 매개로 전시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듯하다. 작품들은 장소특정적 작품처럼 전시장이 지닌 독특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더 다가온다. 전시장 보안여관은 1936년 세워져 2000년대 초반까지 수많은 이들이 하룻밤을 묵은 여관 공간의 역사성을 오롯이 살리고 있다. 전시회는 굳이 따지자면 7개 작품으로 구성됐다. '사랑잡가. 리플렉션-늘 새로운 언어들'에서 정은혜는 편곡한 춘향전·심청가 일부를, 아날로그 소년은 이수일과 심순애로 유명한 장한몽을 랩으로 들려준다. 신파적 사랑이 아기가 오히려 순진하고 신선하게 다가온다.

옆방을 훑쳐보기 위해 벽에 열심히 구멍을 내는 '다른 세계의 끝없는 욕심'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만연한 관음증을 보여준다. 멀정한 양복을 입었지만 눈이 가려지고 묶인 채 매달린 50대 남성('늘 새로운 세계-지나온 삶이 현재에 멈춘 지금을 위한 변명')은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중년직장인일상징한다. 그 역시 가족과 일을 열심히 사랑하지 않았을까를 묻는 듯하다. 또 사랑을 초월한 듯한 60대 부부의 모습인 '사랑 박사들', 광기적 사랑을 보여주는 '미진-기억', 개 흉내를 내며 "사랑합니다. 멍멍멍"을 계속 외쳐대는 '사랑-개'도 있다. 옆 전시장에 마련된 설치영상 '사랑을 믿으세요? 사랑의 기술'은 10대 소녀가 유명 철학자·예술가 등이 말한 사랑 단문을 줄줄 읊으며 관람객에게 강연한다. 소녀의 현란한 강연은 이 시대의 또 다른 풍자다.

술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전시회지만 '사랑이 뭐냐'는 물음에 대한 정답은 없다. 관람객 저마다의 느낌·깨달음이 답일 뿐이다. 김기라 작가는 "다만 스스로에게 사랑이 뭐지 한번쯤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사랑이 뭐냐'는 물음은 어쩌면 '너,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냐'와 같은 질문 아닐까 싶다. 오는 24일 전시장에선 퍼포먼스가 한번 더 벌어지고, 25일 폐막한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lee@kyunghyang.com